

〈제 541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은행

◆ '금융을 부탁해' 금융교육 실시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 지난 27일 담양샘물 지역아동센터에서 전남 담양지역 어린이들 30여 명과 함께 '금융을 부탁해'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금융교육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저학년 초등학생에게는 화폐의 변천사와 세계의 다양한 화폐를 설명하고, 고학년 초등학생에게는 현명한 용돈관리를 위한 용돈기입장 쓰는 법과 용돈 보드게임을 통한 경제알기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2015년부터 시작한 '금융을 부탁해' 금융교육은 광주은행 직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다양한 체험교육을 진행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매년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어린이들을 만나며 호응을 얻고 있다.

금호타이어

◆ '금호타이어, 사랑의 공부방 17호점 개설



금호타이어(대표 전대진)는 지난 28일 광주 광산구에 희망의 공부방 17호점을 개설 했다. '함께 Green 희망의 공부방' 지원 활동은 2016년 8월부터 금호타이어가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수도권 내 청소년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 도배, 장판을 비롯해 PC, 책장, 책상 등 학습교구와 생활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학업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나영산업개발, 남화토건

◆ 지식산업센터 KBI하남 기공식 개최

나영산업개발(회장 고정주)과 남화토건(회장 최상준)은 지난 30일 광산구 하남산단에서 '지식산업센터 KBI하남'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건립 사업은 착공 후 약 38년이 경과한 노후 하남산단의 재도약을 위해 노후산단 구조 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4억원(국비 150억)으로 총 연면적 약 6만262㎡에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213개실, 제조업 66개실, 기숙사 141개실, 근린상가 29개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나영산업개발과 남화토건은 저소득 돌봄이웃 지원을 위한 10kg 들이 백미 300포를 광산구에 기탁했다.



II. 광주경충 소식

〈노사민정협의회 제1차 실무협의회 개최〉



본회(회장 최상준)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8일 광주경충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각 유관기관별 신규사업 및 의제 발굴 등 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광역·기초 공동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중장년센터 제10회 생애설계프로그램 운영〉



본회(회장 최상준)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지난 29일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특강실에서 제10회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중장년센터 구직등록자를 대상으로 일 중심의 생애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4가지 모듈을

활용한 집단상담 교육과 함께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참여한 구직자 42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사무국 일지 (5.27 ~ 5.31)

5.27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 일자리위원회 분과회의 참석 ● 중장년 고용센터 실무협의회 참석 	5.30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산업센터 KBI하남 기공식 참석 ● 중장년센터 사례관리협의회 참석
5.28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민정협의회 제1차 실무협의회 개최 	5.31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44회 금요조찬포럼
5.29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센터 제10회 생애설계프로그램 운영 		

〈제1444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는 5월31일 오전 7시 산양파크호텔에서 마가스님을 초청 〈나를 바꾸는 100일〉이란 주제로 제1444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마가스님은 매일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면서 내가 나의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기 위해 수행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가 나더라도 잠깐 멈추고 1초의 여유를 가지면 후회 없는 삶을 가질 수 있다. 속담 중에 살까 말까 망설인다면 절대 사지 말고, 할까 말까 망설인다면 해버려라는 말이 있다. 오늘의 잘한 일, 후회되는 일, 고마운 사람, 내일 할 일, 오늘의 마음이야기를 정성껏 기록하고 체크하면서 마음의 정원에 자비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행복과 불행은 항상 같이 다닌다. 지금 이순간 나의 행동, 말, 생각은 곧 미래가 된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과거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이므로, 주변을 탓하지 말고 진흙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묵묵히 해나가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무슨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신분이 정해진다. 귀한 사람은 귀한 행동을 하고 천한사람은 천한 행동을 한다. 참된 기도를 통한 자기의 변화만이 우리 삶에 있어서 행복의 꽃을 피우고, 깨어 있어야 만이 비로소 멋진 인생을 시작 할 수 있다.



1. 노사 동향

■ 현대중공업 노조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경총 입장(5.29)

○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및 물적분할에 반대하면서 지난 5월1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금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해 심각한 조업 차질

- 노조는 5월 22일과 5월 27일 서울사무소와 울산 본사에 불법 난입을 시도했고 회사시설이며 주주총회 예정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중에 있음.

○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및 물적분할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적이고 불가피한 조치

-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지난 수년간 해운 경기의 침체라는 외부적 요인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기업들간의 과당 경쟁에 따른 출혈 수주, 생산설비 과잉, 핵심 원천기술의 부족, 고임금·저효율이라는 산업구조적 문제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하락하고 대규모 영업손실과고용감축 등을 겪고 있는 상황

※ 노조가 기업결합이라는 경영 사안에 대하여 파업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는 더구나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

○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있어서 선결인 국가과제는 갈등적·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합리적 노사관계로 개선하는 것

- 갈등적·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로 인한 우리 산업의 고비용·저생산·저효율의문제가 국가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선진경쟁국들과 같은 수준의 협력적·타협적·합리적 노사관계로 선진화하는 것이 국가적 노동개혁 과제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

- ILO핵심협약 비준 사안과 결부된 노동계의 단결권 확대 요구는 기업단위의 노사관계 문제를 현재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정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착수

○ 정부는 5. 24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을 완료하고 5. 30 「전원회의」 개최

-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 위촉

※ 지난 3월 공익위원들의 사퇴와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변동에 따른 조치

- 최저임금위원회는 5. 30 전원회의를 개최해 선임 위원장을 선출하고, 2020년 적용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진행

※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최저임금법 제15조)

○ 노동계는 금번 정부의 공익위원 선임에 대해 상반된 입장 표명

- 한국노총은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들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는 입장 발표

- 민주노총은 “소득양극화와 저임금 문제 해소 의지 대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라는 정부 지침에 충실할 무색무취의 위원으로 구성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 발표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선임 공익위원 명단(5.24)

성명	소속 및 직위	전공분야
권 순 원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노사관계
노 민 선	▲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 연구위원	인적자원 개발
박 준 식	▲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학
신 자 은	▲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노동경제
오 은 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적자원 개발
윤 자 영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노동경제
이 승 열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경제
전 인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노사관계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올해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입법의 지연, 공익위원 재구성 등으로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지체돼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예년보다 늦어질 가능성 존재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 2018. 7. 14
 -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 2017. 7. 15
 -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 2016. 7. 16